

남녀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nflict on Behavior Problems in Early
Adolescent Boys and Girls : The Moderating Role of Conflict Resolution*

장혜인(Hye In Jang)¹⁾

박주희(Ju Hee Park)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parent-child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on behavior problems experienced in early adolescence by both boys and girls, and investigated whether conflict resolution had any moderating effects up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child conflict and these behavior problem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97 first and second graders (193 boys and 204 girls) from three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o measure the research variables, the Korean-Youth Self Report by Oh et al. (2010), the short version of 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 (Homes, 2012), and the Thomas Kilman Conflict Mode Instrument (Cha & Cheon, 2011)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for boys and girls, the level of parent-child conflict increased the levels of bo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hereas conflict resolu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 problems. In addition, in the case of boys only, conflict resolution moderated the effect of father-child conflict o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 본 논문은 2014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 Hee Park,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Yonsei-ro 50,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juheepark@yonsei.ac.kr

Keywords : 초기 청소년기(early adolescence), 문제행동(behavior problems), 부모-자녀 간 갈등(parent-child conflict), 갈등해결능력(conflict resolution).

I. 서론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전환기로서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된다. 발달단계상 사춘기로의 이행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인지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상급학교 진학에 따라 가족과 또래관계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Lerner & Steinberg, 2004).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발달적 과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진학 무렵의 적응과정은 초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문제행동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Eccles et al., 1993; Gutman & Eccles, 2007).

이처럼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범문화적인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Steinberg & Avenevoli, 2000),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경향이 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a).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Ministry of Education, 2012),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더욱이 초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정상 궤도의 발달양상인 경우도 있지만,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만성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McGue & Iacono, 2005),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요인으로는 가족, 또래 등과 같은 환경 변인과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가 중요하게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친구와의 애착(Park, 2013), 또래관계의 질(Han & Doh, 2008), 일탈친구와의 접촉(Hur & Lee, 2006), 부모의 양육행동(Lee, 2013), 부모애착(Ahn, 2007), 부모감독(Veronneau & Dishion, 2010) 등이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가장 일관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Berk, 2007), 아동이 경험하는 발달적 변화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행동적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왔다(Allen, Hauser, Bell, & O’Conner, 1994; Smetana, Campion-Barr, & Metzger, 2006). 이는 초기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와 의존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가지며, 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부모-자녀 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는 다른 발달주기에 비해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높은 갈등빈도를 경험하며, 가족생활주기 중 가장 낮은 관계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Laursen, Coy, & Collins, 1998; Montemayor, 1983).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부모의 허용 간 불일치에서부터 전반적인 친밀감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되는데, 부모가 일방적인 규칙을 만들고 권위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Sorkhabi,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내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b) 그동안 국내 연구들은 부모-자녀 간 갈등과 관련하여 고등학생(Hwang & Doh, 2004)과 대학생(Y. Oh, 2007)을 대상으로 일부 수행되었을 뿐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소수의 연구들의 경우에도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청소년 간의 갈등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최근 청소년이 경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양상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므로 각각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따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Gryczkowski, Jordan, & Mercer, 2010).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가족관계 전환 모델(Model of family relational transformation)에 따르면 이와 같이 초기 청소년기에 고조된 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Holmbeck, 1996). 이에 근거하여 부모-자녀 간 갈등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

다(Shek, 1998; Van den akker, Dekovic, & Prinze, 2010).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부모와의 갈등을 자주 경험하여 불평과 불만이 누적될수록 반사회적 행동(Collishaw, Gardner, Maughan, Scott, & Pickles, 2012), 품행 문제(Wang, Dishion, Stromshak & Willett, 2011), 공격성의 표출(Klahr, McGue, Iacono, & Burt, 2010; Koh & Rueter, 2011)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우울(Briere, Archambault, & Janosz, 2013)이나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Chung, Flock, & Fuligni, 2009)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대감이 고조될 경우 청소년은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Klahr, Rueter, McGue, Iacono, & Burt, 2011), 자존감이 손상되어 우울 증상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철회와 같은 내재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Kuhlberg, Pena, & Zayas,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모-자녀 간 갈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들은 외현화 문제행동 혹은 내재화 문제행동만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 외현화 혹은 내재화 문제행동 중 어느 한 범주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검증하였으나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동반상승하거나 종단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공존 발달(co-development)하는 경우가 많으므로(Lee & Buckowski, 2012), 문제행동의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부모-자녀 간 갈등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부모-자녀 간 갈등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

적으로 성별과 발달단계(Nam & Kim, 2010), 갈등해결능력(Zafirakis, 2013), 자기조절능력(Lee & Choi, 2011), 자아탄력성(Jo, 2013) 등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성별은 청소년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대체로 남학생은 규칙 위반, 공격행동 등 외현화 문제행동을 주로 드러내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호소한다(Scaramella, Conger, & Simons, 1999; Zheng & Cleverland, 2013). 특히 여학생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을 경험할 경우, 내재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청소년 문제행동의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Elizur, Spivak, Ofan, & Jacobs, 2007). 이와 같이 문제행동의 예측변인과 발달 과정도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인들 간의 관계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각기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은 갈등해결능력과 같은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다(Garcia-Ruiz, Rodrigo, Hernandez-Cabrera, Maiquez, & Dekovic, 2013; Recchia, Ross, & Vickar, 2010). 즉, 청소년이 갈등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지에 따라 갈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해결능력은 갈등상황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고유의 대처능력으로서 자신의 목적과 상대방의 목적이 라는 두 가지 축에 기반을 둔 갈등격자모형에 따라 설명된다(De Vliert, 1997). 갈등상황에서 둘 중 어느 축에 좀 더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갈등해결능력이 결정되며, 자신과 상대의 목적

달성에 대한 관심이 불균형을 이룰 경우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게 되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갈등해결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H. Oh, 2007),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을 때 이를 적절히 풀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적만을 우선시하는 경쟁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Rubenstein & Feldman, 1993; Van Doorn, Branje, & Meeus, 2008; Zafirakis, 2013)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갈등해결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여 회피하는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보다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anje, van Doorn, van der Valk, & Meeus, 2009; Jaffee & D’Zurilla, 2003). 이와 같은 결과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무력감이 심화되어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갈등해결능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문제행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절변인이 고려되는데 그 중 개인적 요소로써 갈등해결능력이 제시되고 있다(Branje et al., 2009; Tucker, McHale, & Crouter, 2003). 갈등상황에서 인지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Mayer, 2000), 갈등해결능력은 부모-자녀 간 갈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청소년의 갈

등해결능력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조절효과를 모두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부모-자녀 간 갈등, 갈등해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에 있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 갈등해결능력,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남녀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부와의 갈등, 모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은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남녀 초기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은 부모-자녀 간 갈등(부와의 갈등, 모와의 갈등)과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세 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397명이었다. 초기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012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중학생의 문제행동 수준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inistry of Education, 2013),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가장 빈번한 시기이므로(Chang, 2009)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학교 후반부터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면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양상이 달라져 후기 비행의 궤적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Lee, 2005; Noh, 2007) 중학교 1, 2학년 학생만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193명(48.6%), 여학생 204명(51.4%)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86명(46.9%), 2학년 211명(53.1%)이었다.

2. 연구도구

1) 문제행동 척도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Oh, Kim, Ha, Lee와 Hong(201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총 119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크게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행동척도 중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증후군 척도에서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6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11세에서 18세를 대상으

로 개발되었으며,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응답자로 하여금 현재를 포함한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이 행하거나 경험한 외현화 문제행동(규칙위반, 공격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우울/위축, 불안/위축, 신체증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3점)’까지의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63개 문항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총 32개 문항(규칙위반 15문항, 공격행동 17문항)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총 31개 문항(불안/우울 13문항, 위축/우울 8문항, 신체증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32~96점까지이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31~9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88이었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92였으며, 구체적으로 불안/우울 .84, 위축/우울 .79, 신체증상 .82, 규칙위반 .72, 공격행동 .84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간 갈등 척도

연구 대상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bin과 Foster(1989)가 제작하고 Homes, Bond와 Byrne(2012)가 수정한 ‘갈등행동척도(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 CBQ)’의 축소판(CBQ-20)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와 부모 허용 간의 불일치 상황에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불평 및 불만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아버지와의 갈등과 어머니와의 갈등을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

다. 총 20개 문항 중 8개 문항(2, 3, 5, 8, 9, 14, 19, 20번)은 역채점하게 되어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20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아버지와의 갈등의 경우 .95, 어머니와의 갈등의 경우 .96이었다.

3) 갈등해결능력 척도

초기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Cha와 Cheon(2011)이 중학생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갈등해결능력 척도(Thomas Kilman Conflict Mode Instrument: Thomas & Kilman, 1974)’를 사용하였다. 총 30개 문항인 이 척도는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불일치, 불평과 불만 등 갈등을 겪을 때 자신의 욕구충족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욕구충족에 대한 관심 중 양쪽을 얼마나 조화롭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경쟁, 회피, 순응, 타협, 협력의 5개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각 내용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30개 문항 중 경쟁, 회피와 순응 내용에 해당하는 18개 문항(1, 3, 4, 5, 7, 9, 11, 12, 14, 15, 17, 18, 22, 24, 27, 28, 29, 30번)은 역채점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0~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욕구충족에만 몰두하거나 반대로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것, 혹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자신과 상대의 욕구를 모두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서로의 관심사를 조율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30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

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구체적으로 경쟁 .69, 순응 .69, 회피 .67, 타협 .80, 협력 .7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임의 선정된 세 개 중학교의 16개 학급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 회수율은 약 90%였고 그 중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부모-자녀 간 갈등 문항에 답하지 않은 55명의 자료와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6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9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응답 중 발생한 결측치는 회귀분석에 적절한 결측치처리방법인(Schafer & Graham, 2002)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 MI)으로 처리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 검증 결과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 이후의 모든 회귀분석은 남녀 집단별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각각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인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부모-자녀 간 갈등, 갈등해결능력이며 각 변인의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 = 397$)

Variables	Score range	Boys	Girls	t	
		$M(SD)$	$M(SD)$		
Behavior problems	Externalizing	32~96	40.00(6.90)	40.18(6.10)	-0.28
	Internalizing	31~93	39.77(7.97)	43.60(10.11)	-4.20***
Parent-child conflict	Conflict with father	20~100	43.03(16.34)	43.69(16.16)	-.40
	Conflict with mother	20~100	41.59(15.88)	40.75(17.44)	.50
Conflict resolution	30~150	100.46(10.54)	104.79(10.48)	-4.10***	

*** $p < .001$.

먼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외현화 문제행동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항평균이 각각 1.25점, 1.26점으로 나타났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문항평균은 1.28점, 여학생의 평균은 1.41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중간보다 다소 낮은 편임을 보여준다. *t* 검증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고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20, p < .001$).

부모-자녀 간 갈등은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의 갈등이 문항평균으로 2.15점, 어머니와의 갈등이 2.08점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의 갈등이 2.18점, 2.04점으로 모두 척도의 중간 수준보다 다소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t* 검증 결과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능력의 경우 문항평균이 남학생은 3.35점, 여학생은 3.49점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초기 청소년들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갈등해결능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갈등 상황에서 타협, 협력과 같은 합리적인 방식을 택하여 갈

등해결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 검증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갈등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07, p < .001$).

2.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 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이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갈등(부와의 갈등, 모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부와의 갈등($\beta = .24, p < .01$)과 모와의 갈등($\beta = .29, p < .001$)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와의 갈등($\beta = .23, p < .01$)과 모와의 갈등($\beta = .29, p < .001$)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갈등해결능력의 정도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 차이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통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rent-child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oys (N = 193)	Girls (N = 204)
	β	β
Conflict with father	.24**	.23**
Conflict with mother	.29***	.29***
Conflict resolution	-.05	-.09
R^2	.23***	.25***
F	19.14***	22.29***

** $p < .01$. *** $p < .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rent-child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oys (N = 193)	Girls (N = 204)
	β	β
Conflict with father	.21**	.22**
Conflict with mother	.27***	.24**
Conflict resolution	-.10	-.09
R^2	.22***	.20***
F	17.86***	16.59***

** $p < .01$. *** $p < .001$.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와의 갈등 정도가 높을수록 규칙위반이나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세 변인은 남학생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 총 변량의 23%를, 여학생의 경우에는 25%를 설명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부와의 갈등($\beta = .21, p < .01$)과 모와의 갈등($\beta = .27, p < .001$)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부와의 갈등($\beta = .22, p < .01$)과 모와의 갈등($\beta = .24, p < .01$)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갈등해결능력의 정도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 차이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와의 갈등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위축,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세 변인은 남학생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 총 변량의 22%를, 여학생의 경우에는 20%를 설명하였다.

3.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이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단계에는 부모-자녀 간 갈등(부와의 갈등, 모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추가로 두 개의 상호작용항(부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의 상호작용항, 모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간 갈등과 남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 여학생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는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만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그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2단계에서 두 개의 상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rating effects of conflict resolution between father-son conflict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N = 193)

	Step 1	Step 2
	β	β
Conflict with father (A)	.21**	-.19*
Conflict with mother (B)	.27***	.25**
Conflict resolution (C)	-.10	-.17*
A × C		-.20*
B × C		.06
R^2	.22***	.25***
ΔR^2		.03*
F	17.86***	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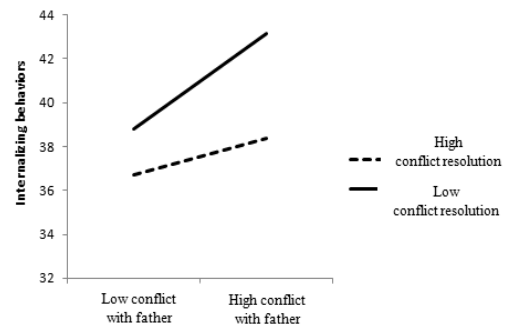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호작용항(부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의 상호작용항, 모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간 갈등(부와의 갈등, 모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2단계의 회귀 방정식에서 부와의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의 상호작용항($\beta = -.20, p < .05$)이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추가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갈등해결능력 정도에 따라 아버지와의 갈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 투입된 두 개의 상호작용항은 추가적으로 3%를 설명하여,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인들은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 변량의 총 25%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남학생의 부와의 갈등이 내재화 문제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갈등해결능력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속 변인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종속변인치 평균값을 산출하여 Figure 1과 같이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래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갈등해결능력이 낮은 집단보다 갈등해결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부와의 갈등 수준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갈등해결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conflict resolution on the relation between father-son conflict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 간 갈등과 남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 여학생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는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문제행동 수준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 점수는 모두 척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초등학생(In, 2013)과 고등학생(Lee & Lee, 2012)의 문제행동 점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학교 진학 이후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는 초기 청소년기에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Ehrlich, Dykas, & Cassidy, 2012; Veronneau & Dishon, 2010).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라는 본 연구대상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공격성이 아동기부터 서서히 발달하는 반면 여학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발달하여 일시적으로 공격성의 수준이 비슷해지므로(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Silverthorn & Frick, 1999), 청소년 초기에는 아동기와는 달리 외현화 문제행동의 성차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특히 중학교 진학 이후 여학생은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으로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우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음을(Meadows, Brown, & Elder, 2006)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갈등해결능력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 정도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자율성 욕구와 부모의 허용 간 불일치를 자주 경험하여 부모에 대한 불평·불만의 정도가 클수록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친밀감이 낮을수록 규칙위반이나 공격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ullock & Dishon, 2007; Yeh, Tsao, & Chen, 2010). 부모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대할 경우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빈번해지며(Hwang & Doh, 2004) 갈등 상황에서 고조된 적대감은 공격적으로 표출되어 청소년의 행동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Klahr et al., 2011)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하여 관계에서의 철회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Kuhlberg et al., 2010). 따라서 부모들은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점차 허용의 폭을 넓혀나가는 한편, 자녀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불일치를 줄여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면 초기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 정도에 따라 문제행동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개인의 대처방식이 문제행동의 발생과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선행연구들(Van Doorn et al., 2008; Zafirakis, 2013)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몇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갈등해결의 인지적 차원을 강조하여 실제 갈등해결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즉, 갈등해결은 크게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의 세 가지 하위 차원 간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갈등을 합리적으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갈등상황에서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합리적인 갈등해결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갈등해결에서 나타나는 문화차를 연구한 Holt와 DeVore(2005)에 의하면 독립적 가치가 중시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갈등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여 합의점을 찾으려하기보다는 적당히 문제 상황을 무마하여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경우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양보하겠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Chang, 2010).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는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순응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서로의 관심사를 조율해나가는 것을 합리적인 갈등해결이라고 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갈등해결능력이 낮은 편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기초분석으로 변인 간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과 문제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26~- .30)가 있었고 동시에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높은 수준의 상관(-.38~- .43)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 두 변인을 회귀분석에 함께 투입하였을 때, 두 변인 간에 높은 수준의 상관이 존재함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해결능력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가능성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해결능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갈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Branje et al., 2009; Tucker et al., 2003) 갈등해결능력이 부모-자녀 간 갈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던 바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갈등상황에서 관계를 철회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는데, 남학생의 갈등해결능력이 높다면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갈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느끼는 분노나 적대감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여타 요인에 의해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학생이 갈등해결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아버지와의 타협 혹은 협력 관계를 이끌어낸다면 갈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자 관계를 제외한 부-녀, 모-자, 모-녀 관계에서는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부-자 관계를 제외한 다른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초기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특성에 기초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동성친구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Hendry, Roberts, Glendinning, & Coleman, 1992)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경우, 아버지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rean, 2008). 이처럼 어머니와의 갈등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버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 수준과 관계없이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은 가족과의 관계악화에 대해 남학생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Davis & Lindsay, 2004) 갈등해결능력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청소년 자신의 갈등해결능력이 높은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완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 여학생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과 갈등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통제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갈등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형제순위, 가족원 수, 가정의 소득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즉, 부모-자녀 간 갈등의 수준이 높은 초기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문제행동을 더 높게 보고한 초기 청소년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추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Cha와 Cheon(2011)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외국에서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갈등해결의 인지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제 갈등해결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우리문화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갈등해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지, 정서, 행동 등 갈등해결의 다차원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해결에 대해서 청소년 자신의 갈등해결능력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가족갈등의 역동을 설명한 인지-맥락적 모델(cognitive-contextual model; Grych & Fincham, 1990)에 따르면 부모-자녀 갈등해결에는 부모의 갈등해결능력 정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갈등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갈등해결능력에 대한 자료도 함께 수집한다면 부모-자녀 간 갈등해결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갈등을 보다 심도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상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척도를 새롭게 적용하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주로 쓰인 갈등 체크리스트(Issue Checklist)는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세부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부모-자녀 간의 표면적인 불일치만 측정할 수 있었고(Bush, Peterson, & Chung, 2013),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는 상황특수성이 두드러지지 않아 일상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측정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차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기존 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녀 청소년에게 아버지와의 갈등과 어머니와

의 갈등을 각각 측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부-자, 부-녀, 모-자, 모-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갈등해결능력을 증진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고, 부모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자녀 간의 갈등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hn, H. W. (2007).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e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1), 179-194.
- Berk, L. E. (2007).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 Branje, S. J. T., van Doorn, M. D., van der Valk, I. E., & Meeus, W. H. J. (2009). Parent-adolescent conflicts, conflict resolution types,

-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2), 195-204.
- Briere, F. N., Archambault, K., & Janosz, M. (2013). Reciprocal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perceived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early adolescenc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8(3), 169-176.
- Bullock, B. M., & Dishon, T. J. (2007).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3), 396-407.
- Bush, K. R., Peterson, G. W., & Chung, G. H. (2013). Family relationship predictor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3(1), 49-68.
-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 M., & Little, T. D. (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9(5), 1185-1229.
- Cha, M. J., & Cheon, S. M. (2011).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conflict resolution program connected with Ethics · Social studies of middle school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10(2), 27-46.
- Chang, J. S.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otional autonomy, behavioral autonomy, children'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child confli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ang, S. J. (2010).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cross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4), 1-17.
- Chung, G. H., Flock, L., & Fuligni, A. J. (2009). Daily family conflict and emotion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from Latin American, Asian,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406-1415.
- Collishaw, S., Gardner, F., Maughan, B., Scott, J., & Pickles, A. (2012). Do historical change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explain increases in youth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1), 119-132.
- Crean, H. F. (2008). Conflict in the Latio parent-youth dya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484-493.
- Davis, P. T., & Lindsay, L. L. (2004).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160-170.
- De Vliert, E. (1997). *Complex interpersonal conflict behaviors*. Psychology Press: London.
- Eccles, J. 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 M., Reuman, D., Flanagan, C. et al. (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 in schools and in families. *The American Psychologist*, 48(2), 90-101.
- Ehrlich, K. B., Dykas, M. J., & Cassidy, J. (2012). Tipping points in adolescent adjustment: Predicting social functioning from adolescents' conflict with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5), 776-783.
- Elizur, Y., Spivak, A., Ofra, S., & Jacobs, S. (2007). A gender-moderated model of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3), 430-441.
- Garcia-Ruiz, M., Rodrigo, M., Hernández-Cabrera,

- J., Maiquez, M., & Dekovic, M. (2013). Resolution of parent-child conflicts in the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2), 173-188.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Gryczkowski, M., Jordan, S., & Mercer, S. (2010). Differenti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5), 539-546.
- Gutman, L. M., & Eccles, J. S. (2007). Stage-environment fit during adolescence: Trajectories of family relations and adolescent outc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522-537.
- Han, H. A., & Doh, H.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87-111.
- Hendry, L. B., Roberts, B., Glendinning, A., & Coleman, J. C. (1992). Adolescents' perceptions of significant individuals in their lives. *Journal of Adolescence, 15*(3), 255-270.
- Holmbeck, G. N. (1996). A model of family relational transformations during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adaptation. In J. A. Graber & J. Brooks-Gunn. (Eds.), *Transitions through adolescence: Interpersonal domains and context* (pp. 167-200). Mahwah, NJ: Erlbaum.
- Holmes, R., Bond, L., & Byrne, C. (2012). The role of beliefs in mother-adolescent conflict. *Current Psychology, 31*(2), 122-143.
- Holt, J. L., & DeVore, C. J. (2005). Culture, gender, organizational role, and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2), 165-196.
- Hur, E. K., & Lee, K. N. (2006). The impact of individual, family, friend and school variables on devia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4), 111-122.
- Hwang, Y. E., & Doh, H. S. (2004). Maternal parent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individuation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2), 133-154.
- In, C. H. (2013). The effect of children's personalit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affee, W. B., & D'Zurilla, T. J. (2003). Adolescent problem solving, parent problem solv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adolescents. *Behavior Therapy, 34*(3), 295-311.
- Jo, S. H. (2013).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peer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lahr, A. M., McGue, M., Iacono, W. G., & Burt, S. A.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child conflict and adolescent conduct problems over ti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1), 46-56.
- Klahr, A. M., Rueter, M. A., McGue, M., Iacono, W. G., & Burt, S. A.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nflict and adolescent

-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5), 683-694.
- Koh, B. D., & Rueter, M. A. (2011). Contributions of parent-adolescent negative emotionality, adolescent conflict, and adoption status to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0(6), 825-836.
- Kuhlberg, J. A., Pena, J. B., & Zayas, L. H. (2010). Familism, parent-adolescent conflict, self-esteem, internalizing behaviors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 Latina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1(4), 425-440.
- Laursen, B., Coy, K. C., & Collins, W. A.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9(3), 817-832.
- Lee, E. J., & Buckowski, W. M. (2012). Co-development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35(3), 713-729.
- Lee, J. Y., & Choi, S. M. (2011).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2), 635-650.
- Lee, S. G. (2013). Effects of parents' rearing behavior and parents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on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M. (2005). Gender difference of delinquency processes across developmental stag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9(4), 162-198.
- Lee, S. Y., & Lee, S. H. (2012). Discrepancies between adolescent and teacher assessment on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7(1), 63-85.
- Lerner, R. M., & Steinberg, L. D. (2004).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 Mayer, B. (2000). *The dynamics of conflict resolu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cGue, M., & Iacono, W. G. (2005). The association of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with adult psychopatholog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6), 1118-1124.
- Meadows, S. O., Brown, J. S., & Elder, G. H. (2006).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93-103.
- Ministry of Education (2012). *Manual for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3). *2012 Report for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2), 83-103.
- Nam, Y., & Kim, J. (2010). A study on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2), 123-141.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a). *2010 Korean adolescents health behavior survey*.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b). *International*

- comparative study of socialization process in adolescence*.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oh, S. H. (2007). An test of life-course theory vs. latent trait theory on juvenile delinquency using Korean youth panel data.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72, 243-275.
- Oh, H. J.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Oh, K., Kim, Y., Ha, E., Lee, H., & Hong, K. (2010). *Korean Youth Self Report*. Seoul: Huno.
- Oh, Y. H. (2007).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nflict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645-663.
- Park, S. M. (2013). A study of the problem behavior of early adolescent male and femal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attachment for parents and frie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Recchia, H. E., Ross, H. S., & Vickar, M. (2010). Power and conflict resolution in sibling, parent-child, and spousal negoti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5), 605-615.
- Robin, A. L., & Foster, S. L. (1989). *Negotiating parent-adolescent conflict: A behavioral-family systems approach*. New York, NY: Gilford.
- Rubenstein, J. L., & Feldman, S. S. (1993). Conflict-resolution behavior in adolescent boy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1), 41-66.
- Scaramella, L. V., Conger, R. D., & Simons, R. L. (1999). Parental protective influences and gender-specific increases i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2), 111-141.
- Schafer, J. L., & Graham, J. W. (2002). Missing data: Our view of the state of the art. *Psychological Methods*, 7(2), 147-177.
- Shek, D. T. L.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1), 53-67.
- Silverthorn, P., & Frick, P. J. (1999). Developmental pathways to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1(1), 101-126.
- Smetana, J. G., Campion-Barr, N., & Metzger, A. (2006). Adolescent development in interpersonal and societ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255-284.
- Sorkhabi, N. (2010). Source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Content and form of parent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8(6), 761-782.
- Steinberg, L., & Avenevoli, S. (2000). The role of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71(1), 66-74.
- Thomas, K. W., & Kilman, R. H. (1974). *Thomas-Kilman Conflict Mode Instrument*. Tuxedo, NY: Xicom.
- Tucker, C. J., McHale, S. M., & Crouter, A. C. (2003). Conflict resolution: Links with adolescents' family relationships and individu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 24(6), 715-736.
- Van den akker, A., Dekovic, M., & Prinzie, P. (2010). Transitioning to adolescence. *Develop-*

- ment and Psychopathology*, 22(1), 151-163.
- Van Doorn, M. D., Branje, S. J. T., & Meeus, W. H. J. (2008). Conflict resolution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4), 503-527.
- Veronneau, M., & Dishion, T. J. (2010). Predicting change in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in the middle school yea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8), 1125-1137.
- Wang, M., Dishion, T., J. Stromshak, E. A., & Willett, J. B. (2011). Trajectories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early adolescent behavioral outc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324-1341.
- Yeh, K., Tsao, W., & Chen, W. (2010). Parent-child conflict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5(2), 131-139.
- Zafirakis, E. (2013). Examining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among persistently anti-social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1-18.
- Zheng, Y., & Cleveland, H. H. (2013). Identifying gender-specific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nonviolent and violent delinquency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36, 371-381.

Received December 31, 2013

Revision Received February 24, 2014

Accepted March 17, 2014